



거룩한 새로움이란 것에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Celano 의 다른 문장도 살펴보기로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겸손을 향한 가장 초기 단계로 돌아가고자하는 큰 소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희망 안에서 그의 무한한 사랑으로 기뻐하고 있었고;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몸을 본래의 예속 상태로 돌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근심에서 오는 장애물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걱정의 소란스러움을 침묵시켰다. 병으로 인해 이러한 엄격함을 풀어야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또는 전혀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 만이 아니라 새로운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기를 희망했습니다.(1 Celano 103)*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장 초기의 단계로 돌아가려는 큰 소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뿌리들로 돌아가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근심, 걱정을 끊어내 버리고 싶어합니다. 우리도 지칠 줄 모르고 거룩한 새로움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1978 년 규칙이 공표되었을 때, 네 명의 프란치스코 회 의 회장들이 다음과 같이 썼음을 기억합니다:

**“ 새롭게 시작하려는 희망은 원래의 근본으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에게 영감과 지도를 받은 고행의 형제 자매의 영적인 경험으로 돌아오는 데 달려있다. 또한 이 새로운 시작은 이 시대의 징조 안에서 성령에게 열려진 마음에 달려있다.”**

### THE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징조는 지난 3 년간 국가적인 노력을 특징 짓는 촉매제가되었습니다. 국가회 행정 위원회 (NEC ,National Executive Council)는 프란치스코 청소년 및 청년 (FYA)위원회의 활동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017년 초에 우리는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재속회원들 모아 비전 모음

(vision gathering)이라 부르는 그룹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갱신의 소망에 필요한 것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시대의 징조를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물었습니다. “ 청소년 분야에서 우리 재속회에 대한 하느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찾던 방향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비전의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청년 모임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내는 일들은 2018 년의 영성의 비전과 2019 년의 정의 평화 피조물 (JPIC) 비전에 이어져 진행되었습니다.

### A SEASON OF VISIONING

우리는 각 비전마다 같은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수준의

경험을 가진 많은 재속 프란치스코 회 지도자들과 회원, 영적 조력자 및 더 넓은 프란치스코회 구성원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과 문화를 잘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지정된 독서에 대해 묵상해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각 모임의 중요한 질문은 “ 우리 재속회에 대한 하느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도록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들을 읽어내었고 거룩한 새로움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비전의 결과물들은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성령께서 쏟아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것들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 안에서 세 위원회의 위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영성, JPIC은 우리의 삶의 방식, 세속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 안에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세속성.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삶을 위해 하느님 께서 부르신 복음의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비전은 분명합니다. 1208 년 2월에 프란치스코의 삶에 주님께서 관여하신 것 만큼이나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